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5846.09 (+37.56)	코스닥 1151.99 (-2.01)
금리 (연이자율) 3.154 (+0.011)	환율 (원/달러) 1441.55 (-5.05)

metro 경제



엑시노스로 AI 성능 'UP'... 갤럭시 S26 베일 벗는다 5900 터치

6천피까지 153포인트 남아

삼성전자, 25일 미서 언팩
'갤럭시 S26 울트라' 언팩의 핵심 낮은 조도 카메라 촬영 성능 개선 전작과 같은 6.9인치에 베젤 줄여 '엑시노스 2600' 탑재 AI 성능 기대

'갤럭시 언팩 2026' 행사가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향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갤럭시 인공지능(AI)의 구현 방식과 활용 범위가 한층 구체화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카메라·디스플레이·충전 성능 등 전반적인 하드웨어 완성도 역시 주요 관전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언팩의 핵심은 '갤럭시 S26 울트라'다. 울트라 모델은 단순히 스펙 상향을 넘어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하드웨어 완성도를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업계에서는 울트라 모델의 조리개를 기존 f/1.7에서 f/1.4로 키워 낮은 조도 환경에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촬영 성능이 개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도 관전 포인트다. 갤럭시 S26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같은 6.9인치이지만 베젤을 더 줄여 체감 너비와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삼성디스플레이의

5백/80 풀옵선투룸 다가구반지층 대흥동	3천/100 풀옵선투룸 채광 Good 대흥동	2천/90 채광좋은2층 풀옵선투룸 대흥동	2억/140 방3/옥실2 엘베 / 주차 성신APT	1천/50 분리영원룸 풀옵선투룸 대흥동	1천/100 풀옵선투룸 울수리 대흥동
전세 2억2천 1층 독채 풀옵선투룸 대흥동	전세 2억 5천 버팀목대출 방3 옥실1 대흥동	전세 1억2천 내대출가능 풀옵선투룸 대흥동	전세 8천 분리영원룸 서강대우문 대흥동	전세 12억 84B 34평형 방3 / 옥실2 그랑자이	전세 2억5천 대흥동
매매 3억 갭 8천만원 풀옵선투룸	매매 6억 지분13평 가로주택정비	매매 7억5천 전세 3억 갭 4억5천	매매 6억 지분 6.5평 구역지정임박	매매 4억8천 지분 25평 방6 / 옥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5.6% '경중' 정부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규제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2.7%)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뉴시스

'플렉스 매직 픽셀' 기술이 적용된 프라이머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I성능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S26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한다. 엑시노스 2600은 2나노 게이 트올아라운드(GAA) 공정을 적용한 칩셋으로 최신 Arm 아키텍처 기반 데카 코어 설계를 통해 전작 대비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이 최대 39%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망처리장치(NPU)도 개선돼 생성형 AI 연산 능력이 113% 늘

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메모리 역시 전작인 갤럭시 S25에서 확립된 '전 모델 12GB 램' 기초를 유지하며 플래그십 성능의 하한선을 높였다. 특히 이번 신작에서는 동작 속도가 20% 이상 빠른 최신 LPDDR5X 메모리가 탑재돼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성능을 최적화했다.

충전 속도 변화도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수년간 유지해 온 45W 유선 충전에서 나아가 사상 처음으로 '60W 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쟁사 플래그십 모델들과의 충전 속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고사양 AI기능을

장시간 사용하는 유저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가격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주요 부품 단가 상승으로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S26 시리즈 전 모델이 전작 대비 9만9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 모델인 갤럭시 S26(256GB)의 국내 출고가는 125만4000원, 갤럭시 S26 플러스(256GB)는 145만2000원, 갤럭시 S26 울트라(256GB)는 179만7000원이 거론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코스피가 장 중 5900선을 돌파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0.65% 오른 5846.09에 마감했다. '육천피'(코스피)까지는 불과 153.91포인트를 남겨 두게 됐다. 특히 장중 코스피는 5900(5931.86)까지 치솟았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 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한 만큼 수출 중심 구조인 국내 경제와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13면>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1.53% 올라 사상 최고가인 19만3000원에 마감했다. 시총 2위이자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는 0.21% 상승해 사상 최고가인 95만1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주식 3640만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5%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美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 장중 5931.86 터치, 5846.09 마감 삼성 19.3만원, SK 95.1만원 기록

대법원의 관세 무효 결정을 호재로 인식한 현대차 또한 이날 6.09% 급등했다.

코스피가 6000선에 바짝 다가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자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속속 높여 잡고 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이날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로 최대 8000을 제시했다.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슈퍼 사이클, 인공지능(AI) 설비 투자 밸류체인과 방위 산업 부문의 견조한 실적, 피지컬 AI의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 등을 들었다. 앞서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강세장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수 목표치를 7500으로 제시했고, 씨티그룹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500에서 7000으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은 시장을 흔들 불쏘시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 협상 중인 이란에 '10일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는 소식은 글로벌 금융 시장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이날 일본 닛케이225는 1.12% 밀렸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하락해 마감했다. 지난 주말 국제 유가는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안전 자산인 금은 다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불안 심리가 커졌다. /신하은 기자 godhe@

2030년 방산 스타트업 100곳·천억벤처 30곳 육성

중기부-방사청, 업무협약 맺고 '방산발전추진단'도 꾸리기로

정부가 2030년까지 방위산업분야에서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문체부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꾸린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방산스타트업 육성 관계기관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날 나온 육성방안과 업무협약은 지난 1월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협약 내용에는 ▲방산 분야 유망 (예비)창업기업 발굴·성장 지원 프로그램 공동 추진 ▲방산 기업·기관과 중소·창업기업의 기술협력, 정보공유 활성화 ▲방산 중소·창업기업의 기술 개발·고도화, 국내외 시장 진출 등 성장 지원 ▲방산분야 상생협력모델 발굴 및 상생협력사업 공동추진·연계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협약기관 간 방위산업 분야 업무공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혁신 스타트업들의 방산 분야 진입 기회를 넓히고 성장 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참여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도 더욱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군 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대, K-방산 스타트업(방사청)-초격차 스타트업 사업화(중기부)-방산 혁신기업 100(방사청) 사업간 연계, 기존 방위산업 펀드와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활용한 방산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방산 대·중견기업 상생수준 평가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방위산

업은 군 수요를 충족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군 수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메트로 한줄뉴스



▲與 "野" 대미투자특별법 방해 매국행위...국익 불모로 발목
▲배현진 장동혁 거냥 "고성국 왜 함구하나...못 건드는 '상왕' 있다" /사진 뉴시스

▲홍준표 "보수 궤멸시킨 한동훈이 대구? 제2의 유승민 될 것"
▲오세훈 "절운 없으면 승산 없다...저도 위험해 절규하는 것" 지적

▲송영길 계양을 국정설명회 불참...후보 교통정리 수순 관측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의...인천시장 출마 선언